

제1회 광주독립영화제 25~28일 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

광주를 영상에 담다, 지역영화계가 움직인다

광주 지역의 영화 인프라는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부산, 전주는 물론이고 제주도에서도 장편 극영화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광주에서 제작된 장편 극영화는 지금까지 단 한편에 불과했고, 개봉도 되지 못했다. 광주 지역 영화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여건은 힘들지만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찾는 다큐멘터리 감독들도 많고, 재기 넘치는 시나리오로 짧은 극영화를 찍는 감독들도 많다.

최근까지 광주에서 제작된 독립영화를 한

전남대 탈교 출신인 윤수완씨의 '그대 이름은, 광대'는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놀이매 '신명'의 이야기와 더불어 광주의 문화운동을 더듬어 본 작품이다.

백종록 감독이 선택한 것은 예술전용 극장 광주극장이다. '마음대로'라는 작품을 통해 감독은 자신이 좋아하는 광주극장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 또 찾지 않는 이유를 카메라에 담았다.

김화순 감독은 오월을 이야기한다. '오월을 걷는 여자'는 80년 광주를 기억하는 이들



최성욱 감독의 '오마이 빛고을 V10'

다큐멘터리 등 작품 40여편 상영 11개 섹션으로 진행

'오 광주 프로젝트'... 광주 첫 장편 극영화 '인 마이...' 눈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영화제가 처음으로 열린다. 지금까지 광주국제영화제 등의 한 섹션으로 광주 독립영화 상영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상영되는 건 처음이다. 오는 25일~28일까지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열리는 '2012 광주독립영화제'에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등 모두 40여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지난 2009년, 지역에서 활동하는 감독 60여명이 화원으로 참여해 구성된 광주독립영화위원회(대표 조대영)가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의 타이틀은 '살아 있다'다. 지역 영화계가 움직이고 있고, 작품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다섯 명의 감독이 바라본 광주의 모습을 담은 개막작 '오 광주 프로젝트'다.

의 이야기다. 화가인 화순씨, 풍물 치는 미하씨,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윤희씨의 이야기를 통해 오월을 들여다 본다.

최성욱 감독의 '오마이 빛고을 V10'은 광주의 도시 경관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화려한 모델 네온 사인이 뒤덮인 상무로, 광주천의 교각들, 도심 곳곳에 들어선 광주 풀리 등을 통해 광주를 비관적으로 들여다 본다.

조대영 대표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영상 창작자 30명의 생생한 욕망을 담은 '광주, 영화가 필요한 시간'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는 모두 11개 섹션으로 진행된다. 눈에 띄는 작품은 광주에서 처음 제작된 장편 극영화 '인 마이 씬'('기억에서 추억으로의 증후군')이다. 김형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독립영화계의 스타인 김택비가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광주에서 처음 상영

되는 작품이다.

또 지난해 열린 뉴욕국제독립영화제 다큐 부문 감독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신은정 감독의 '베리타스-하버드, 그들만의 진실', 음악인 한보리씨의 작품인 '노간주 나무 아래 잡들다', 광주일보에 칼럼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를 연재중인 김래원 감독의 '겨문거리'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청소년들의 재기발랄함을 만날 수 있는 '광주 1318섹션', '5월 이야기', 광주 감독들의 상상력을 들여다보는 극영화 섹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섹션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영화제를 준비한 조대영 대표는 광주 독립영화계의 대표 인물이다.

지난 1991년 영화감상 모임 '굿 펠러스'를 조직한 조 대표는 1994년 전남대에서 페미

니즘 영화제를 개최한 후 광주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 왔다.

초대 대표였던 최명진 목사에 이어 협회를 이끌게 된 조 대표는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화제작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번 영화제를 준비하는 등 광주영화의 도약을 위해 뛰고 있다.

"광주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광주에서도 장편 극영화를 포함해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고, 또 서로 격려하기 위해 이번 영화제를 마련했습니다."

조 대표는 "아직은 잠자고 있는 광주가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열정이 식지 않는 한 꾸준히 땀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531-18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낭만의 가을, 유진교향악단과 함께

오늘 문예회관서 정기연주회... 다양한 협연무대까지

유진교향악단(단장 한만섭) 87회 정기연주회가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연주(초당대 교수·사진)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슈베르트의 '미란성 교향곡' 1악장 등을 들려주며 또 소프라노 김영실(호남대 외래교수), 바리톤 박병국(호남신학대 등 출강)씨가 조두남 곡 '산촌',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아리아를 선사한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협연무대도 마련된다. 심혜진(초당대 2년)씨는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3번' 1악장을 협연하며 오서진(국제고 2년)양은 이흥렬곡 '꽃구름 속에'를 부른다. 또 최승우(살레시오초2

년), 오현아(문정초 1년), 정서진(금당초3년)이 '축구 이야기',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놀라운 솜씨' 등 동요를 선사한다.

그밖에 리더스 노래하는 천사들과 리더스 앙상블이 '멋쟁이 할아버지' 등 동요와 바흐의 '미뉴에트'를 연주한다.

지난 1984년 창단한 유진교향악단은 매년 두차례의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문의 011-640-57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이웨이웨이, 세계 미술계 영향력 3위

1위는 13회 카셀 도큐멘타 총감독 캐롤린, 여성 최초

제 9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아이웨이웨이가 올해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13회 독일 카셀 도큐멘타의 총감독 캐롤린 크리스토프 바카기예프가 뽑혔다. 아트리뷰가 2002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미술계 파워 100인 명단에 여성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영국의 미술 전문지 아트리뷰(ArtReview)가 최근 발표한 '세계 미술계 파워 100인'(Power 100)에 따르면 중국 반체제 미술가로,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아이웨이웨이는 3위에 올랐다. 아이웨이웨이는 지난해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다소 순위가 낮아졌다. 아이웨이웨이는 광주비엔날레 기간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엔날레 광장 전면을 스크린으로 활용, '언어 프로젝트'라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이웨이웨이



안톤 비도클

비엔날레 5 전시관에 '타임뱅크' 작품을 내놓은, 국제 미술계 소식과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플렉스 대표인 안톤 비도클과 줄리타 아란다는 12위에 올랐다. 3 전시관에 '역사 이후: 사진작가로서의 알렉산드로 코제브'라는 작품을 전시중인 보리스 그로이스는 61위에 뽑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히말라야 설산, 현실인지 환상인지

산악인 화가 박종석 개인전, 23~29일 원갤러리

알파니스트의 꿈이 히말라야의 높은 설산인 이유, 이 때문일까. 직접 가 본 현실을 담은데도, 환상처럼 느껴질 만큼 아름답다.

산악인 화가 박종석씨가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원갤러리에서 여는 '영혼의 산! 히말라야'전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작품 곳곳에는 흰 눈을 엮은 히말라야 산맥을 배경을 감투른

하늘에 별빛이 가득하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50여점의 작품에는 박씨가 직접 답사한 에베레스트, 로체샤르, 칸첸중가 등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중 13개 봉우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묵 담체의 전통적 기법으로 히말라야 별빛을 표현한 작품이나 장지 위에 수묵, 채색을 조화시켜 그린 5m짜리 대형 작품 '평화를 위한 기도문'은 자연을 통해 우주의 호흡을 느낀다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산외산'

수 있다.

알파니스트들에겐 익숙한 파키스탄 가셔브롬 1·2봉 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산을 좋아하는 등반가들이라면 작품을 통해 발로만 들었던 히말라야의 아름다움

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광주시 동구 대의동 은암미술관으로 옮겨 전시가 계속된다. 문의 062-222-6547.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0년 공직생활과 일상에 대한 고백

신용기씨 '빨간 립스틱과 맥주' 발간... 24일 출판기념회

신용기 전 전남도교육연구원이 시집 '빨간 립스틱과 맥주'를 발간했다. 출판기념회는 24일 오후 5시30분 광주시 서구 마루동 아이리스웨딩홀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신씨는 시집에서 '내 마음의 꽃밭', '허수아비의 꿈', '고향블루스', '아름다운 방황' 등 8가지 주제로 나눠 각각 10~20편씩 나눠 실었다.

시집은 전남도·목포시교육청, 전남공고, 담양공고 등에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역임한 저자의 삶에 대한 고백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서민 아파트의 아침 풍경을 떠올리

는 '향기 실은 엘리베이터'나 '맥주 앞에서' 등은 일상 속 흔한 풍경을 솔직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씨는 지난 2008년 계간 종합문예지인 '문예시대' 여름호 시 부문에서 '고향의 봄' '외달도 사랑' 등 5편의 시로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효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ojang.com